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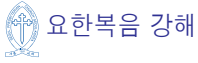
§ 2019년 표어 §

"거룩한 교회 ·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
(히 13:12-16, 합 3:2)

十 행동 지침 十

- 1. 교회의 거룩성 회복하여 민족의 희망
- 2. 믿음의 대를 잇는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
- 3. 하나님 역사 속의 행동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말씀과 증거자 I

(요 1:6-8)

이종윤 원로목사

로고스 되신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이 로고스를 증거하는 분이 나타나는데, 그 분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세례 요한이 덜 중요한 인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요한이 예수님을 위하여 온 자는 점차 쇠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은 점점 흥하시는 분이 되어야 한다고 외치면서 자기를 감추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였기 때문입니다.

1. 세례 요한

(1)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끝이 나고 예수님부터 복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구약은 모두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구약성경은 오실 예수를, 신약성경은 오신 예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다른 예언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2) 메시아 앞에 나타난 엘리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말 4:5).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은 메시아의 도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보다 훨씬 앞서 있던 선지자인데 지금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예언입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나타났습니다.

(3)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요 1:6)

‘났으니’는 헬라어로 ‘에게네토’입니다. ‘에게네토’는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났다가 없어질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요 세례 요한은 한 번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피조물)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큰 자라도 피조물 이상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4) 새 시대의 전위병(전령사)

세례 요한은 구약전서에 나타난 마지막 대표자입

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으므로 요한은 새로운 시대의 첫 출발자가 아니고 새 시대를 위한 전령사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마 11:11). 이 말은 은혜시대에 사는 사람들, 성령시대에 사는 사람들,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요한이 받는 은혜 정도가 아니라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5) 주님의 큰 자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자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역할입니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들려주는 것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소리처럼 울리는 소리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기를 감추는 자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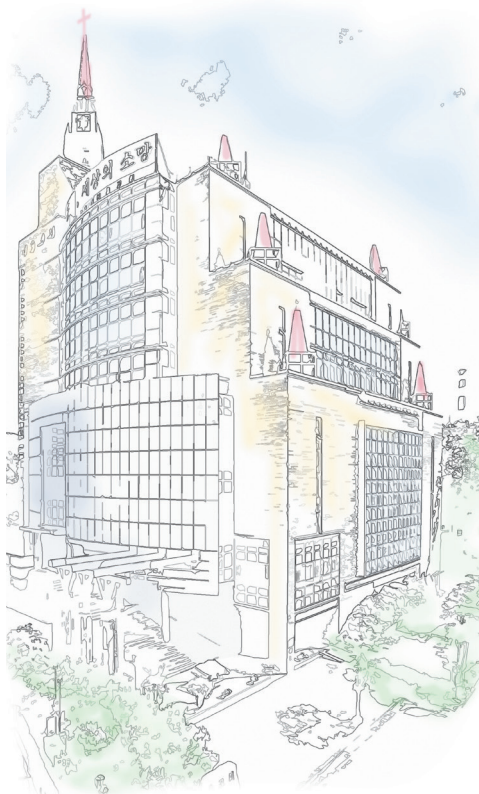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마 3:11). 믿음과 회개는 손바닥의 안팎과 같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회개하게 되어 있고 회개하면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회개를 위한 세례라 하는 이 말은 회개한 자에게 주는 표징으로 회개한 사람, 회개의 세례는 완전한 교인된 표, 죄 씻음 받은 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한 표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 3:30)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쇠하여야 되고’는 영어로 decrease입니다. 점점 쇠하고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increase, 점점 증가하고 점점 커지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세상은 자기가 남보다 조금 윗자리에 앉거나 앞서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잘라내어 버립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현재 가장 높은 자리에, 인기 절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나 다니엘, 예레미야, 아모스와 같은 위대한 예언자의 반열에 놓아도 손색이 없는 예언자입니다. 이름 없는 나사렛 예수를 보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고 말한 요한이야말로 진정한 예언자였습니다.

(다음주 계속)



홍해작전 승전 2일 앞으로!

6월 24일(월)~6월 25일(화) 오전 5시 30분 / 강사: 조원영 목사
승전감사에배 : 6월 30일 찬양예배 시

"영원한 위로(慰勞)"를 주제로 6월 6일(목)부터 시작한 2019 홍해작전이 이제 마지막 승전을 앞두고 있다.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국가와 교회, 개개인 앞에 놓인 홍해를 가르기 위해 6월 6일(목) 새벽을 깨우며 시작한 홍해작전이 지난 주는 서창원 목사를 강사로 오전 5시에 모여 특별새벽기도회로 모였었다.

이제 남은 이를 조원영 목사를 강사로 오전 5시

30분에 모여 드리는 새벽기도회에 나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커다란 장애와 시련 앞에서 기도와 믿음으로 극복한 기적의 역사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응답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

6월 25일(화) 종전예배 후 떡잔치, 수박잔치가 있을 예정이며 6월 30일(주) 찬양예배 시 이종윤 원로목사 인도로 2019 홍해작전 승전감사에배를 드린다.



서울강남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요청 -서울강남노회 소속 강희창 목사-

박노철 목사에 대한 법원의 직무집행정지처분 결정으로 당회장 결원상태가 되어 현재 법원에서 선임한 변호사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당회 등 제반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교회는 지난 6월 19일, 소속 서울강남노회에 헌법 정치 제67조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제1항에 따라 과반수 당회원의 연명(합의)으로 서울강남노회 소속 강희창 목사(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40, 서초교회 담임)를 서울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지난 5월 정기당회에서, 법원의 직무대행자 선임결정 취지를 존중하고 아울러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회법상의 직무대행자 체제를 목사

가 담당하는 교단법상의 임시당회장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의에 따라 과반수 당회원의 연명(합의)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이후 서울강남노회로부터 당회원들의 요청대로 강희창 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되면 자연스럽게 강대성 변호사에 대한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은 철회될 예정이다.

물론 서울강남노회로부터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될 때까지는 법원에서 선임된 강대성 직무대행 변호사가 여전히 서울교회 대표자로서 당회 등 제반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므로 현 상황에 특별한 변화는 없다.

6월 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6월 16일 주일 찬양예배 시 2019년 6월 세례식이 있었다. 서울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마 28:18-20)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매해 짝수달(격월) 3째주 주일 찬양예배 시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다.

본 예식은 서울교회 3대 목표중 하나인 "천국시민양성"의 가시적 열매임과 동시에 본인에게는 신앙성장의 기회가 되므로 교구와 다락방 및 각 교회 학교에서는 세례 대상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기 바란다. 사전교육 및 신청절차는 새가족 위원회 세례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금번 세례/입교/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다.

· 세례 : 이한기

계 1명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감우균·김연화 박동식·유하영 문동진·김은정
정복순 장창수·박혜정 주경자·황유림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6월 의료선교 상담 일정

- 6월 2일: 노제현(안과), 김동준(내과)
- 6월 9일: 노선균(흉부외과), 정현구(치과)
- 6월 16일: 김봉배(통증), 김관섭(영상의학)
- 6월 23일: 공민호(신경외과), 이종욱(진검)
- 6월 30일: 최용준(한방), 이경진(성형외과)

2019 성경암송대회

범위: 마 5-7장(산상수훈)
예선: 9월 29일(주일)
본선: 10월 12일(토)

2019년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가 확정되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란다.

1. 교회학교별 성경암송대회(예선)
 - * 일시: 9. 29(주)
 - * 암송범위: 마 5-7장(산상수훈)
2. 각 부서별 성경암송대회(본선)
 - * 일시: 10. 12(토) 오후 1시



Bus Metro Walking

B.M.W. 운동



2019홍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 설교 요약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승전 예

강사 : 서창원 목사

**6월 17일(월)
고난 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사 53:4-6)**

1. 인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겪었던 인물을 보면 구약에서는 욥을 고난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고, 신약에서는 복음과 진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며 순교한 사도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로는 이스라엘만큼 고난을 당한 민족은 또 다시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대부분 죄와 관련하여 말할 수 있지만 율처럼 세상적인 판단과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 역시 모든 인간이 죄와 연관이 있음과는 맥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아닌 인간으로서, 또 완전한 신으로서 우리 인간 대신 고난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2.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4-5를 통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지 말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 모든 인생이 죄 가운데 출생되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대제사장이시며,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며,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는, 하늘보다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히 7:26-27)

3.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고난과 죽음이 가져온 복락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댓가로 우리는 평화와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복락은 평강을 누리는 것이며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사 57:21)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곤고와 흑암의 고통과 사망의 죄 사슬에 매여 있음에서 해방된 것도 모든 능력을 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서울교회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통해서 더욱 강해진 하나님의 용사들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철저히 하게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는 쇠하여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흥해지는 그 같은 역사를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사흘 만에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더 이상 고통도 분쟁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승리를 쟁취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6월 18일(화)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요 15:18~20)**

1. 세상은 왜 성도를 미워하나

예수님은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함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요 15:19).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일은 불행일까요? 축복일까요? 당연히 축복이지만 현실에서는 불행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야고보 사도는 '만일 세상과 벗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약 4:4).

세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비성경적인 불필요한 처신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와 우리들이 세상을 잘 섬기는 최선의 길은 첫째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하나님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과 타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잘 섬기는 유일한 길은 우리 스스로가 철저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최고의 행복자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불행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는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을만한 자질이나, 그에 합당한 공로는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با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고,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롬 8:17).

3.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세상에서 그 누가 하나님과 같은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나를 떠나고, 때로는 아내도, 남편도, 그리고 자식까지도 나를 떠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언제나 동행해 주시므로 우리의 찬양이 되고 계십니다(시 27:1-2).

원수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를 핍박하는 악인들을 스올에 빠뜨리시므로 잠잠하게 하소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월 19일(수)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
(롬 8:17~25)**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할 것과 같이 고난과 핍박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결코 성도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느 청교도 성직자가 "천국에 온 성도들의 얼굴에는 마귀가 할퀴고 간 상처 자국이 너무도 많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진정한 성도라면 그 누구라도 아픈 고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고난의 현장에서 위로 받을 것은 "나는 누구

인가?”라는 정체성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1.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한 필수 과정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 왜 우리교회가 이같은 아픔을 겪어야 하나?"라는 질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장차 도래될 영광에 이르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롬 8:17). 실제로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2. 고난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신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기 때문에 핍박과 시련을 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초대교회의 성도들 모두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극심한 고통과 환난을 당하였지만 그들은 자신들만 이 같은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지 않았습니 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심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이것은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의 아픔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3. 장차 누릴 영광을 깊이 생각하라

환란을 이길 가장 큰 비결 중 또 한 가지는 장차 누릴 영광을 깊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 합니다(엡 1:18).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 서울교회가 이 아픔을 다 딛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의 면류관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시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6월 20일(목)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후 1:3-11)

성도는 모든 환난에 노출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교회가 있고 진리가 있는 곳에 핍박과 고통이 동반되었고, 그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억울한 아픔들을 겪는 일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가 우리로 하여금 수치와 낭패를 겪게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없게 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사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1.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자비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냥 하나님이 라 하지 않고, '자비의 아버지'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고후 1:3).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모든 순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합니다(눅 18:1, 7).

2. 위로로 그치지 않고 능히 견져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 위로하실 뿐 아니라 능히 견져주십니다. 우리는 고난이 넘칠수록 은혜도 넘치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고후 1:8-9).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 같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까? 이것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기막힌 환난 가운데 있는 서울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바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마침내 서울교회에 넘치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넘치는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넘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건지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월 21일(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 1:24-29)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나는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즐겁고, 형통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괴롭고 힘이 듭니까? 이 괴로움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일이 아닌,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은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괴

로움을 견디는 것은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데 오는 고통과 괴로움을 기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어떠한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1. 성도가 기뻐해야 할 이유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할 이유는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고후 7:4).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갈 6:17).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당한 고난의 흔적은 곧 예수의 흔적입니다.

2.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사도 바울은 교회 때문에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가 남긴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영광스러운 것이며 성도는 기꺼이 이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 1:24). 여기서 '채우노라' 계속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의 남긴 고난을 계속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의 발자취를 좇아갈 때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벧전 2:12, 빌 3:10).

성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이 고난을 감당하는 일은 성도에게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주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웁니다. 이 환난은 결코 부끄럽지 않은 것이며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은 어떤 면에서 교회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분열을 통해 성장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손해도 감당하고 억울함도 감당하고 누명 쓰는 일에도 담대하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시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논취 : 윤명구 집사 정리 : 허 숙 권사)



6.25 전쟁 69주년 특별기고

6. 25전쟁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박정성 협동집사 (6교구, 예비역 해군제독)

우리의 안보 최대 약점은 적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 6.25전쟁을 상기하게 됩니다. 북한이 남침하여 6.25전쟁이 일어난지 69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대남 적화 목표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인민군과 남로당에 의한 정규전·비정규전 배합 전술로 외부 증원 무력을 차단하면서 선제 기습으로 속전속결로 남한을 적화하려던 그들의 계획은 미군을 비롯한 UN군의 참전으로 실패로 끝났습니다.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와, 그들의 적화시도 시 미군 증원군의 차단을 위하여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고,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도발하고 있어서 6.25전쟁 이후 우리의 안보가 가장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막연한 희망 평화에 젖어 안보불감증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하는데 NPT체제 하에서는 우리가 핵을 보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비핵화는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북한 핵에 대응하면서 우방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취약점은 우리가 잘하면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평화 기대 심리입니다. 6.25전쟁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드온의 군대처럼 국민 모두가 안보의 중요성을 절박하게 느껴야 하겠습니다.

법원, 장로임직효력정지가처분 이의 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이의 건 모두 승소판결!

— 박노철 목사의 이의신청 기각, 원 가처분 결정 인가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3월 2일 박노철 목사가 불법으로 선출한 15인에 대한 장로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박노철 목사는 부끄럽게도 날짜만 바꾸어 다른 예배로 가장한 채 이들을 몰래 장로로 임직시켰으며 이에 대하여 2018년 4월 2일 다시 법원이 그 장로임직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리자 박노철 목사는 이에 불복, 그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까지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019년 6월 17일 박노철 목사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다라도 기존 가처분 신청은 여전히 정당하다며 달리 별도의 이유도 붙이지 않은 채 기존 가처분 결정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박노철 목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원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인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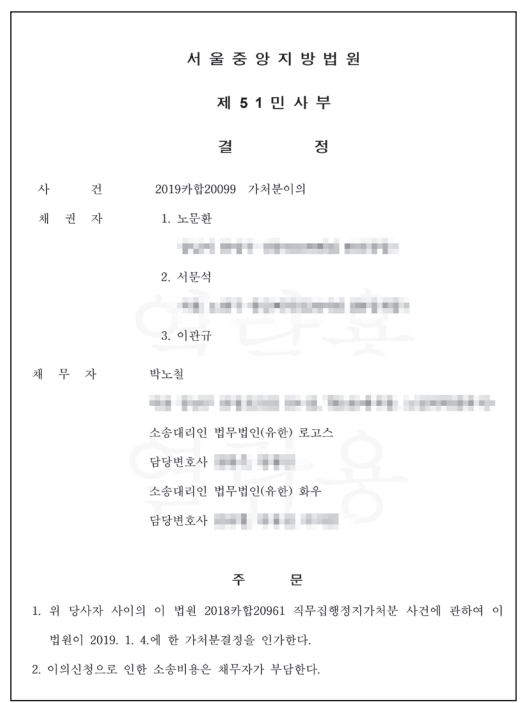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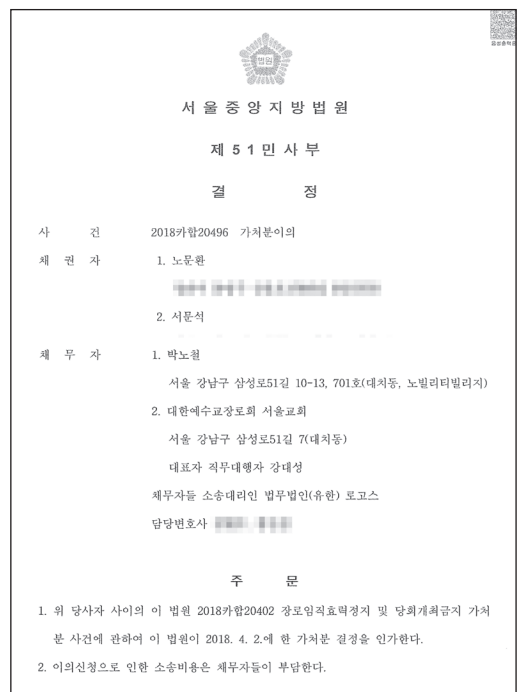
앞서 5월 14일 총회재판국도 당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노회의 장로증원허락이나 장로선출 공동의회 소집지시는 무효라는 판결까지 선고된 상황이므로 이제 사회법으로나 교단법으로나 15인 장로선출과 관련된 주장은 더 이상 반박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혹시라도 이와 같은 국가법원이나 총회재판국 판결까지 모두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노회가 허락했으므로 장로임직과 시무가 적법하다'는 공문을 보낸 서울강남노회를 등에 업은 어떤 불법행동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12월 18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박노철 목사의 위임(담임)목사 지위 부존재 판결을 선고하자 2019년 1월 4일 박노철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내렸고 역시 이에 대하여도 박노철 목사는 새로운 대형로펌까지 선임하고 여러 사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에 대하여도 지난 6월 17일 역시 별다른 이유도 붙이지 않고 기존 가처분결정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원 결정 그대로 인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미 법원은 박노철 목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으로써 서울교회에 교회를 대표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하는데 있어 법률전문가가 적합하며 강대성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도 박노철 목사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한 바 있는데 결국 이번 기각결정으로써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박노철 목사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가처분 사건은 모두 마무리 된 것이다.

한편 법원은 위 장로임직관련 이의 건 가처분인가 결정문에서 서울교회 대표자를 '담임목사 박노철'이 아닌, '직무대행자 강대성'으로 표시하고 있는 바, 지금도 대법원판결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 대표자 지위에 있다고 고집하는 서울강남노회의 주장과 비교하여 관심 있게 볼 필요도 있다.

이제 남은 대법원판결 상고건이 속히 기각되어 서울교회 회복의 큰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보고 - 인도

주께서 주신 사명,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관심과 후원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나할리교회(이삭 목사), 니모처나교회(비스타파 목사), 딘네교회(사지 목사), 예수복음교회(예녹 목사)는 어느 정도 부흥하여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골 치그라푸라 마을로 이주하여 개척한 아가페교회는 교회학교 중심으로 든든히 서가며, 새로운 지바 목회자를 청빙하여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지바 목회자는 찬양과 기도를 잘하며, 특히 기타를 잘 연주합니다. 영성도 갖추어서 예배도 은혜롭게 인도합니다. 젊은 목회자이기에 마을 청년들과 운동과 교제를 하며 전도의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아가페학교는 유치원 LKG, UKG, 초등학교 1학년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6월 1일 새 학기에 2학년 개학식을 하였습니다. 해마다 한 학년씩 증원되어

운영될 계획이며 이번에 교육청으로부터 정식으로 8학년까지 학제를 허가받았습니다(8학년은 한국 학제로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아가페학교의 직원은 교사 5명(영어 교사 4명 칸나다어 교사 1명), 도우미 교사 1명, 학교차 기사 2명(1명은 지입차량), 경비원 1명입니다.

지난 5월 투표 결과로 모디 총리가 이끄는 극우 힌두 정당이 다시 정권을 잡을 예정이며, 인도의 경제가 꾸준히 발전함으로 인하여 물가 상승 등, 인도에서 사역을 감당함에 여러 가지로 고충이 있지만 주께서 주신 사명,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실과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겠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19년 6월 20일
인도 선교사 우상식·김정옥 올림

*P.S. 저희들은 2019년 6월 28일에 귀국하고자 하오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6월24일	월	시 69-72		딤후 1-3, 문, 히 1-6	
6월25일	화	시 73-77		히 7-13	
6월26일	수	시 78-79		약 1-5	
6월27일	목	시 80-84		벧전 1-5, 벧후 1-3	
6월28일	금	시 85-89		요일 1-5, 요이, 요삼, 유	
6월29일	토	시 90-95		계 1-10	
6월30일	주일	시 96-102		계 11-22	

동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6월 29일(토) 몽골 울란바타르대 이사회에서 설교한다.
- 전시회 : 13교구 김정미 권사 아트미션 정기전 "보듬어 주는 시선" 이랜드스페이스 5.31 (금) - 6.27 (목)



- 금주의 식사 : 한상학 집사 김선희 권사 가정 황정옥 집사 주경자 권사 가정 (지너 결혼을 감사드리며) 나시고랭 (인도네시아볶음밥) 무생채
- 흥해작전 승전감사 떡 제공(6월 25일 화) 송영재 집사 · 함정희 권사 가정
- 흥해작전 승전감사 수박제공(6월 25일 화) 박찬성 집사 · 심명숙 권사 가정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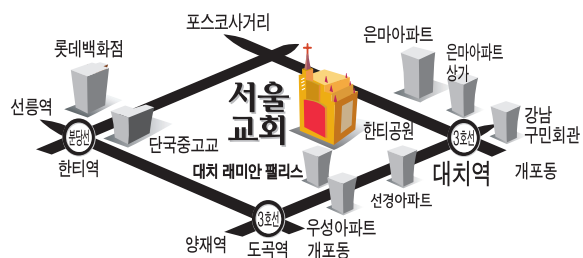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6월 25일(화) 새벽 5시 30분, 2019 흥해작전 중전예배를 통하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흥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교회가 속히 회복되어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3.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전쟁의 위협 없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